

공단기 관리형 종합반 성적 현황					
구분	국어	영어	한국사	총점	출석율
진단고사	50	65	30	145	
중간고사	병결	병결	병결	-	97%
기말고사	65	80	55	200	

● 관리형 종합반에서의 기본기 다지기

인터넷 강의 말고 현장강의를 들으려고 한 이유는 공무원 시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, 직접 현장에 부딪혀 그 현장의 분위기와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였습니다. 그런 뒤 막상 수업을 듣다보니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종합반 선생님들은 모두 자타공인 최고의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, 담임선생님들도 한 반의 학생 수가 많긴 했지만 개인별, 그룹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셨고 공무원 공부방법과 방향을 잘 가르쳐주셨습니다. 종합반 수업의 장점들 중 하나가 정말 수업시간을 타이트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이 였습니다.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면 피곤하여 졸릴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해주셔서 전혀 졸리지도 않았고 재미있었습니다. 가끔 선생님들의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따끔한 소리를 해주시는 데 그것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자극이 많이 되었습니다. 아침 수업 시작 전에는 전 날 배운 수업에 대한 쪽지시험과 공무원 시험과목 중 영어비중이 크다보니 단어 시험을 매일 보았습니다. 이렇게 볼 때마다 전 날 배운 공부가 다시 머리에 각인되어 기억에 더 오래 남았고, 매일 영어 시험을 치다보니 단어량이 훨씬 풍부해져서 영어 공부를 할 때 한층 더 수월했습니다. 이렇게 타이트한 계획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고, 보다 빨리 강의 내용을 흡수하였고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.

● 관리형 종합반 수강후

저는 종합반 2달을 다니고 나니 실력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 수석반에 가서 더욱 더 심화학습을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수석반에 들어가기 위해 온라인 시험을 쳤고 운 좋게 합격을 하여 수석반에서 4개월 정도 공부를 하였습니다. 종합반과 다르게 수석반은 소수정예로 구성되어있었고, 반 분위기가 좋아 개개인의 공부 의지 또한 대단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소수정예로 수업하다 보니까 담임선생님과의 접촉도 많았고 상담기회도 많아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, 어디에 원서를 쓸지 어느 과목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. 수석반의 수업은 일주일에 한번 씩 있을 정도로 적었고 자율학습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더욱 더 문제를 풀 시간이 많았고 저는 한 번에 100분씩 시험을 보는 데에 익숙해지도록 최소 100분 집중하여 앉아 있는 연습을 하였습니다.

이렇게 종합반에서는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수업 잘 듣고 복습 열심히 2달 간 하였고 수석반에서도 수업 외에 자율학습 시간에 100분간 문제 풀면서 집중하다보니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게 되었고 모의고사 성적도 상위권으로 맞을 정도로 제 자신이 성장해 있었습니다.

● 종합반 이후 커리큘럼

2개월 종합반 → 2개월 심화+진도별 모의고사 → 2개월 압축+동형 모의고사